

생리통·난임 초래 ... 수술 후에도 정기검진 받아야

건강 바로 알기 자궁내막증

오성택 시엘병원 원장
전남대 명예교수

자궁내막증은 생리통을 지닌 여성의 80%와 난임 여성의 60%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 생리통과 난임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진단되면 약물 치료나 심한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심하면 계속적인 하복부통을 갖는 만성 골반통을 일으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만약 난소에 자궁내막종이라는 낭종을 만들면 이는 일부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수술로 낭종을 제거해야 하는데 수술이 다른 질환과 달리 복강 안의 심한 유착을 동반해 매우 위험한 수술로 전문가의 수술이 필요한 아주 힘든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재발이 매우 많아서 수술 치료 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즉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며 낭종으로 재발하는 경우는 재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므로 호르몬이 안 나오는 폐경이 되면 소실되지만, 만약 폐경 후에도 호르몬이 음식이나 약으로 투여되면 또 재발하는 질환이다.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자궁내막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발

환경 호르몬도 여러 원인 중 하나 ... 현대병의 일종
수술 후 임신율 52% ... 원인 불분명 재발·재수술 많아

또한 점차 빨라져서 재수술 받는 분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환경 호르몬도 여기 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현대병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의 원인=자궁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이 자궁이 아닌 복강 내 혹은 그 외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한다.

매월 배란이 되면 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게 자궁 안에 자궁내막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달에 임신이 안 되면 자궁내막은 매월 탈락해 밖으로 빠져나오며, 피가 같이 나와서 생리라는 현상을 만든다. 이때 이 생리 혈과 자궁내막을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자궁이 수축을 하는데, 이 수축에 의하여 생리 혈과 자궁 내막의 극히 일부가 나팔관을 통하여 복강 안으로 역류를 한다. 결국 복강 안에 생리 혈과 자궁 내막 일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복강 내에 들어온 자궁내막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가동되어 들어온 자궁내막을 전부 청소하고 제거하는 게 자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이 제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복강 안에 자궁내막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다음 생리 때 제거가 안 된 복강 안의 자궁내막에서 생리 혈을 만

들게 된다. 이 혈액에 의하여 주위에 장들이나 난소, 방광 등 다른 조직과 유착이 발생하게 되어, 생리 때 아픈 생리통이 생기게 되고 부부 관계 때 아프게 되고 심하면 생리가 아닐 때도 아픈 만성 골반통이 되며 이는 병이 계속 진행하므로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된다. 이러한 유착과 기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임신이 잘 안되는 난임이 발생한다.

만약 자궁내막증이 나팔관에 가까운 난소에 많이 떨어져 자궁내막종이라는 혹을 만들면 이는 일부가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수술이 어려운 점은 낭종을 수술할 때 정상 난소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자궁내막증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 정상 난소를 최대한 남겨야 다음 임신에 지장이 적다.

자궁내막증에 의한 주위 유착은 통증과 난임에 매우 관계가 깊어 반드시 거의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유착의 대부분은 주위의 장과의 유착이므로 장이 손상받을 경우 복막염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세밀한 준비와 유착 제거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 유착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아도 낭종처럼 악성이 되지는 않으나 자궁내막증의 두가지 큰 증상인 통증과 난임의 치료와 재발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술



시엘병원 오성택 원장이 생리통으로 불편을 겪는 여성과 상담하고 있다.

(시엘병원 제공)

조작이다.

◇자궁내막증의 치료=자궁내막증의 약물 치료 원리는 자궁내막증 병변을 위축시켜 제거하고, 그 병변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크게 나누어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폐경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 자궁내막증 병변이 소실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 중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자궁내막증 병변을 소실시키는 것이다. 이는 임신 중에는 자궁내막증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

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끊으면 재발이 많은 것이 큰 단점으로 꼭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

자궁내막증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자궁내막증이 난소에 낭종을 형성한 경우 즉 자궁내막증이 생긴 경우, 장애 발생한 자궁내막증, 직장 질 중격에 생긴 자궁내막증, 복강 이외의 장소에 발생한 자궁내막증 등이다.

자궁내막증의 수술 후 약 70%는 통증이 없어지고, 약 20%에서는 통증이 있기는

하나 좋아지고 약 10%에서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는다고 한다. 수술 후에도 남은 통증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의 수술 후 임신율을 종합하여 보면 대개 52%의 수술 후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고, 경미한 자궁 내막증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61%, 중등도의 자궁 내막증 수술 시는 50%, 심한 자궁내막증 수술 시는 39%의 수술 후 임신율을 보였다고 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응급의학 가치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 갖추겠다”

전남대병원 허탁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차기 이사장 당선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허탁(사진) 교수가 차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에 당선됐다.

허탁 교수는 최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열린 제10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평소 응급의학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진료 및 학회활동을 펼쳐온 허탁 신임 이사장은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순직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응급의료체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탁 이사장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인증평가제를 도입하고 응급실 수가 별도 코드 신설에 기여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진찰



료를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금정

상화, 표준화 전공의 교육 운영, 응급실폭력해결 고충처리센터 등을 추진해 왔다. 허탁 이사장은 전남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를 취득한 후, 2005년부터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후학양성과 진료에 매진했다.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소장·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

고압의학회장·한국항공응급의료학회 부회장·광주응급의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또 여수엑스포 지도의사(2012년)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CMO(2012년-현재) 그리고 우즈베크 보건부장관 의료자문 등을 맡으며 한국응급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도 기여했다.

이같이 응급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2006년)·소방방재청 청장상(2009년)·광주시장상(2016년) 등을 수상했으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희망 골든타임’ 등)도 발표했다.

허탁 이사장은 “앞으로 응급의학과 의 가치를 높이고 응급의학 전문가가 자랑스럽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국내 응급의학 역량을 강화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GIST·광주보훈병원 보행분석 인공지능 공동연구

걸음걸이 분석 시스템 설치

GIST(지스트, 총장 김기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최근 광주보훈병원(원장 김재후)과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보행분석 인공지능 공동연구 추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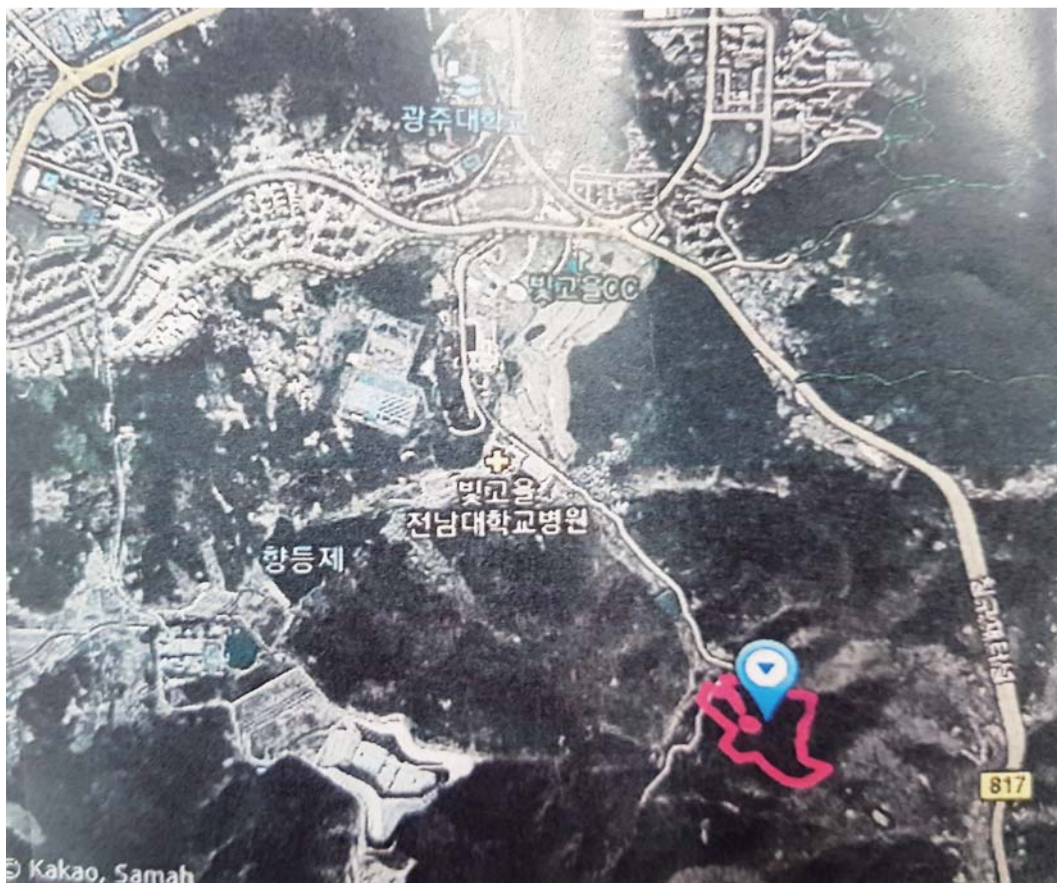
‘보행분석 인공지능 공동연구’를 위해 GIST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음걸이 분석 시스템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광주보훈병원 내에 설치한다. 설치된 길을 통과하는 보행자의 25개 관절 위치 값 데이터를 측정하여 보폭의 길이, 걸음걸이의 전후·좌우 균형, 몸의 좌우 균형, 걸음걸이 속도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선제적으로 조언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금일 기념행사 개최 이후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행되며 의료현장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하면, 걸음걸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예측과 대응 뿐 아니라 특히, 고령자 낙상 및 치매관련 위험도 분석과 개인 맞춤형 재활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보훈병원 김재후 병원장은 “GIST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양 기관이 인공지능 의료분야의 4차산업혁명 선도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